

혈당·혈압 집에서 체크... 전남 어르신 '스마트한 건강 관리'

'디지털 헬스케어' 5년만에 22개 시·군 전체 참여... 전국에서 6번째 '오늘건강' 앱 통해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생활습관 개선 도움도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전남이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이하 AI 건강관리사업)'에 목포와 나주시·화순·구례·장흥군이 포함되면서 지난 2020년 사업 시행 이후 5년 만에 22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게 됐다.

2020년 여수·순천시·신안군을 시작으로 ▲2021년 광양시·곡성·완도·진도·해남군 ▲2022년 담양·영광·장성군 ▲2023년 영암·함평군 ▲2024년 고흥·보성·강진·무안군에 이어 올 하반기에 남은 5개 시·군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전남이 전국 17개 특별·광역시도 중에서 광주·대구·세종·제주·전북에 이어 여섯 번째이자, 특히 도 단위에서는 세번째로 어르신 건강관리에 모든 시·군이 참여하는 지자체가 됐다.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은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관련 앱인 어르신용 '오늘건강' 앱과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이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게 되며, 각 시·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남의 AI 건강관리사업 참여 누적 인원은 1만4030명으로, 경기(2만7898명)·서울(2만1957명)·경북(1만4630명)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다.

또 전남도의 AI 건강관리사업 현황 자료

(2025년 5월 기준)에 의하면 올해 신규 참여 5개 시·군을 포함해 22개 시·군의 사업 대상 인원은 총 618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순천이 1200명으로 가장 많고, 여수(1000명)·신안(520명)·곡성군(270명) 순이었다.

순천은 지난 2020년 7월 전남에서는 가장 먼저 AI 건강관리사업에 선정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신규 인원(1065명)이 처음으로 1000명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안의 경우 군 단위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섬 지역 의료사각지대 최소화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AI 건강관리사업 대상자에게는 활동량계·체성분계·혈압계·혈당계 등 스마트 기기가 지급되고, 모바일 앱과 연동해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 건강측정, 건강관리 실천 여부, 만성질환 개선여부 등을 사전·사후로 평가한다.

특히 지자체는 '오늘 건강' 앱을 통해 혈압·혈당 등 주요 건강지표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사업 대상 어르신들은 월별로 제시되는 건강 미션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자율적 건강관리 역량을 키우게 된다. AI 건강관리사업의 건강증진 효과는 지자체별 우수사례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섬 지역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섬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자원순환 실천하며 배워요" 지난 5일 광주 북구 운암1동 동운마을 자원순환창고에서 종이팩 재사용 활성화와 지구 살리기 실천 동참을 위해 북구청 자원순환팀 직원, 기후환경연합공동체 이음 회원들이 태봉어린이집 아이들이 가져온 우유팩을 화장지로 교환해 주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나주 영산포 흥어거리' 자꾸만 가보고 싶네

전남도, 환경개선 사업 완료...간판 개선·보행로 정비·주차장 확보

전남도가 8일 "19번째 남도음식거리인 '나주 영산포 흥어거리' 조성 축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조성된 '나주 영산포 흥어거리'는 영산포만이 가진 이야기를 녹여내 또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했다.

남도음식거리는 특색있는 지역 전통음식을 통해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명품화 사업이다.

나주 영산포 흥어거리는 2023년 사업에 착수해 지난 5일 조성을 끝마쳤으며, 지난해 선정된 함평천지 맛거리(20번째)와 진도서촌 간재미거리

(21번째)를 조성 중에 있다.

남도음식거리로 선정되면 조성사업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음식거리 상점물, 편의시설, 간판 개선, 보행로 정비, 쉼터, 주차장 확보 등 미시 관광 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억원(도비 5억·시군비 5억)을 들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또 남도음식거리와 인근 음식점은 남도음식평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 구례, 화순, 영암 3곳을 대상으로 서면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2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선정된 남도음식거리는 목포 평화광장 맛의 거리, 여수 해양공원 삼합거리, 순천 웃장

국밥, 나주 영산포 흥어, 광양 불고기·섬진강명덕 포구 횡집거리, 담양 창평국밥, 곡성 압록참게·은어, 고흥 녹동장어, 보성 벌교 꼬막, 장흥 바지락, 키조개, 강진 병영 돼지불고기, 마량 미향횡집거리, 해남 닭코스, 무안 빨나지, 영광 법성포 굴비, 장성 장어, 완도 전복, 신안 삼발나지, 나주 영산포 흥어거리, 함평천지 맛거리, 진도서촌 간재미거리 등 21곳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도음식거리 브랜드화를 위해 '1시간 1음식거리'를 조성해 지역 특산물과 문화를 연계, 깨끗하고 특색있게 남도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겠다"며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AI 활용 당신이 생각하는 '디자인 광주'

광주시, 8월 4~7일 공모전...제품·공공시설물 등

'2025 광주 AI(인공지능) 디자인 공모전'이 개최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2025 광주 AI(인공지능) 디자인 공모전 접수가 진행된다.

올해로 두 번째인 이번 공모전은 'AI×문화중심도시, 당신이 생각하는 광주' 주제로 진행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발전에 대응해 기업과 디자이너들의 생성형 AI 기술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준비됐다.

제품 디자인,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디자인, 시각정보 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특색을 담은 창의적인 디자인을 뽑는다.

디자인기업, 디자이너, 일반인, 대학(원)생 등 AI 디자인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하고, 팀이나 기업

도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3개 작품까지 출품 가능하다.

응모는 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랑'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디자인 결과물 이미지, 생성형 AI를 이용해 디자인을 개발한 과정을 담은 자료(PPT)와 함께 구글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2차 발표평가를 진행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AI 활용 능력(적정성, 차별성, 혁신성 등), 아이디어·디자인 우수성, 완성도, 실현 가능성 등이다. 기준으로 심사한다.

응모작 중 대상(1점)에게는 500만원이 수여된다. 이외에도 출품작 수준에 따라 최우수상(2점, 각 300만원)·우수상(2점, 각 100만원 등)·장려상(4점, 각 50만원)·특선(출품작의 5% 이내) 입선 작품도 선정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해상풍력 기반 '기본소득' 모델 연구 착수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전남도의회 내 의원연구단체가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모델 연구에 착수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는 지난 5일 '해양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상풍력 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한 기본소득 지급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해상풍력 산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지역 산업의 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착수보고회에서 목포대학교 고두갑 교수는 해상풍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급 모델 개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통한 운영 체계 구축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정길수(무안1·민주당) 의원

은 "전남은 바다와 바람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재생 에너지 산업의 요충지로 성장할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해상풍력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기본소득 모델 구상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지속 가능한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는 정길수 의원을 대표로, 송형근(고흥1·민주당), 강문성(여수3·), 김인정(진도·), 최동익(비례·), 최정훈(목포4·), 정영준(순천1·), 진호건(곡성·)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북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